

정부 지원금 '쥐꼬리' 어린이집 부실 운영

봉급낮아 교사 인력난 ... 불법소지 내연

김미경 기자

최근 서울시의 감사에서 구청 운영 어린이집들의 부실운영실태가 드러나면서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의 감사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모두 44곳이었다.

이 가운데 단 한곳을 뺀 나머지 43곳이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 미달' '보육아동 정원조정 및 반편성 기준 초과' '보육료 부담징수' '시설 운영비 지출 부적정' 등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어린이들을 돌본다는 시설의 운영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하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린이집을 영리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시설장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시에서 정한 보육교사 임금과 보육료로는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어린이집쪽의 호소도 귀기울여 들어볼직하다.

이번 감사에서 한 건도 지적을 받지 않은 유일한 어린이집인 곡교어린이집 윤석용 이사장도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된 데 불과하다"며 "현재 30~40만원선으로 책정된 어린이집 교사·영양사·간호사 봉급수준으로는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번 감사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서울시 표창을 받은 강동구 천호4동 곡교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살펴보자.

현재 1백78명의 어린이를 26명의 교사·간호사·영양사들이 돌보고 있는 곡교어린이집의 교사·간호사 본봉은 1호봉인 사람이 32만 2천원이다. 여기에 교사수당 2만원, 가계보조비 2만원과 본봉의 20%에 해당되는 복지수당이 더해져도 한달 봉급으로 50만원 이상을 받는 교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청에서는 교사 7명분의 본봉 90%와 수당 80%,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들의 보육료, 하루 8백원씩의 2살 미만 영아 간식비를 지원한다. 어린이 부모에게서 받는 월 보육료는 2살 미만 영아의 경우 13만2천원, 2살 이상은 12만4천원, 3살 이상은 8만원 씩이다.

어립잡아 계산해도 이익을 볼



구석을 찾기 힘들다.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근무하면서 50만원도 못받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희생정신을 갖고 어린이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나라 탁아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그나마 시에서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구청운영 어린이집의 경우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지역사회탁아

소연합회' '부스리기선교회' 등 민간이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탁아소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사 봉급이 30만원선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개 민간탁아소를 지원하는 '부스리기선교회' 강명순 총무는 "현재의 교사 봉급 수준으로는 질 높은 탁아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탁아사업 자체가 이익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보사부가 직장·민간 보육시설 건축비 등으로 국민연금 1천5백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하면

영리사업과는 거리가 먼 탁아사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들 지적한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곡교어린이집.

서 정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빈민지역 탁아소들은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조건을 내놓아 탁아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 감사발표를 계기로 더 적극적인 탁아 지원방안 모색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